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09년 이래 뉴욕주에서 최초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다고 발표

뉴욕시 외곽의 뉴욕주에서 사망이 약 16 퍼센트 감소

뉴욕주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 포스(New York State Heroin and Opioid Task Force)가 권장 행위는 중요한 이정표 달성 지원

공개된 뉴욕주 카운티 오피오이드 분기 보고서(New York State County Opioid Quarterly Report)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외곽에 거주하는 뉴욕주 주민들 사이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2018년 15.9 퍼센트로 2017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가 10년 만에 최초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비극적으로 사망하지만, 감소는 여전히 중요한 성과이며 지난 몇 년간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처하기 위해 주지사가 취한 몇 가지 적극적 정책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 성과 보고(Heroin and Opioid Task Force Progress Report)에 주요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는 상세하게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 목적의 서비스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삼 년간의 사업과 개선사항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Task Force) 권고는 2016년 서명을 받아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십 년만에 처음으로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다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 치명적인 재앙을 끝내려는 우리의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은 이 나라의 어떤 주보다 적극적으로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오피오이드 사태는 너무 많은 가족을 절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뿌리뽑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소식이지만, 우리는 뉴욕주 전역의 많은 지역사회가 오피오이드 전염병에 의해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경계를 풀지 말아야 합니다. 뉴욕주는 오피오이드 남용 및 과다 복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하는 지역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민들 사이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과다 복용 사망자는 수 년간 증가하다가 2018년 마침내 1,824명을 기록해 2017년의 2,170명에서 15.9 퍼센트 하락했습니다. 또한 오피오이드와 연관된 남용으로 입원한 사례는 2017년 3,260건에서 2018년 3,029건으로 7.1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입원 및 기타 데이터는 가장 최근의 **뉴욕주 오피오이드 분기 보고서(New York State County Opioid Quarterly Report)**에 포함되어 있으며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성과는 2016년 Cuomo 주지사가 소집한 뉴욕주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 권고안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주지사는 자신의 2019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일환으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재소집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와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 Arlene González-Sánchez가 공동 의장을 맡은, 태스크포스(Task Force)는 회복 센터, 청소년 클럽 하우스, 확장 피어 서비스, 치료 혁신 센터(Centers of Treatment Innovation), 모바일 치료, 원격 건강 및 24시간 오픈 액세스 센터, 즉각적인 평가 및 관리에 대한 추천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그 이후로 뉴욕주 전 지역의 여러 지역사회에 설립되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과 가까운 장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Kathy Hochul, Co-Chair of the Heroin and Opioid Task Force. Kathy Hochul, Co-Chair of the Heroin and Opioid Task Force.**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의 공동 의장인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이룬 이 엄청난 성과를 인식하는 한편, 오피오이드 중독의 치명적인 피해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와 가족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 성과 보고(Heroin and Opioid Task Force Progess Report)는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처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삼 년간의 작업과 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오피오이드 관련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곳에 도달하고 이 사태를 완전히 종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도력하에 우리는 중독에 대처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과는 분명하지만, 단 한 명도 남용으로 인해 사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중독과 오피오이드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Cuomo 주지사의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Heroin and Opioid Task Force) 권고에 따라 오피오이드 위기를 퇴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회복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으며, 헤로인과 오피오이드 중독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 주 전체의 예방 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많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이 질병의 영향을 받은 뉴욕 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 성과 보고(Heroin and Opioid Task Force Progess Report)는 뉴욕에서 오피오이드 중독의 악순환을 깨뜨리려는 뉴욕주 전체 수준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는 과거의 뉴욕주의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성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

뉴욕주 전역의 치료 능력 증가

- 2016년 이래로, 뉴욕주는 신규 치료 수용 인원을 약 500명 가량 늘렸고 오피오이드 치료 프로그랜 슬롯도 1,80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위기 서비스, 입원 환자, 외래 환자 및 주거 치료 프로그램 등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모바일 클리닉 및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수요가 높은 지역사회에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 증대

- 연방 오피오이드 주정부 집중 대응 보조금(Federal Opioid State Targeted Response Grants)과 주 오피오이드 대응 보조금(State Opioid Response Grants)을 통해 예방, 치료 및 회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 이러한 자금 지원을 통해 뉴욕주는 피어 서비스, 모바일 치료, 원격 건강 증진, 타겟 예방 서비스 및 회복 지원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서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1차 건강 관리 시설 및 병원에서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대한 약물 보조 치료 (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MAT) 서비스 통합.

- 약물 보조 치료(MAT) 처방 증대를 위한 조치로 인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에 따라 부프레노핀 처방전을 받는 환자수의 약 47 퍼센트 증가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뉴욕주의 회복 센터 수가 **2016**년 **3**개에서 현재 운영 중인 **32**개로 증가*

- 작년에 약 32,000명의 사람들이 뉴욕주에 있는 회복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 회복 센터들은 뉴욕주의 물질 사용 장애를 해결하려는 주지사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센터들에는 전문 직원, 동료 및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회복 중인 사람들을 도와 장기적인 회복을 촉진합니다.

기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요건 간소화 및 신속한 약물 보조 치료(MAT) 시작을 지원하는 의료 지침을 발행하여 환자가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당일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처방 교육, 많은 오피오이드 처방 제한, 인식 캠페인 확대, 지역 차원에서 예방 이니셔티브에 투자하는 지역 연합 및 파트너십 지원 등 예방 서비스 향상.
- 입원 치료를 위한 사전 보험사 승인 폐지 등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보험 상의 문제를 해결.
- 의약품에 대한 보험 적용, 보조금을 받는 공동 지불 및 모든 중독 서비스 지원청(OASAS)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통해 현장 날록손 유지 관리를 요구함으로써 남용 치료 약물인 날록손에 대한 접근성 확대.
- 남용 질환 회복 후 주 전역의 응급 부서(Emergency Departments)에서 약물 보조 치료(MAT) 시작한 병원 수 증가.
- 오피오이드로 인한 질병(Opioid Use Disorder, OUD) 치료에 부프레 노핀을 사용한 중독 서비스 지원청(OASAS)/보건부(DOH) 모범 사례 배포.
- 약물 사용자 건강 허브의 사용 확대.

헤로인 오피오이드 태스크포스 성과 보고(Heroin and Opioid Task Force Progess Report)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